

순천교육청 '남녀의 여순 붓으로 품다' 특별기획전 개최

오는 5월 2일까지 순천교육청 갤러리'청'에서 관람 가능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아픔 기리는 서예가등의 작품 전시

순천교육지원청이 오는 5월 2일까지 순천교육지원청 갤러리'청'에서 '남녀의 여순 붓으로 품다'를 주제로 서예 특별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순천지역 서예 동호회 '청필락'과 함께 지난해 제정된 여순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별법을 기념하고,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청필락회 조이권 회장과 회원들은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에서 엮은 여순 10·19 증언록에서 느낀 여순 사건의 역사적 바람과 사연을 '기억', '아버지', '해원', '평화', '진실' 등 40여 점의 작품과 함께 전시한다.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는 서예가 가정 이정숙 선생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70여 년의 세월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신 유족들의 아픔을 글로나마 나누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했다."고 전시 의미를 설명했다.

이용덕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뜻깊은 전시를 준비해주신 청필락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평화와 인권의 측면에서 여순사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담양교육청 학교지원센터, 학생자치역량 강화 위한 캠프 실시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초·중학생 학생회 임원 46명을 대상으로 담양 학생자치연합회 자치역량 강화 리더십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리더십 캠프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전교학생회에서 벗어나 회

의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점차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8주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세월호

초·중 학생회 임원 46명 대상

추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회의에 참여하였고, 각 모둠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깊다.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담양중 학생자치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몇몇 친구만 발표하고, 나머지 친구는 판지를 하여 회의진행이 어려웠는데 오늘 배운 기법으로 학교에서 학생회를 해 보면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고 하였다.

이숙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은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학생자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신안교육청, 초·중고 학교장 협의회 개최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우리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즐거움 배움 행복한 성장 희망찬 신안교육'이라는 슬로건과 기초기본학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 나눔과 협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협의회는 청정바다지킴이 실천을 위

신안=이덕주 기자

한 머그컵 증정을 시작으로 2022학년도 신안교육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희망찬 신안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혁신교육지구 운영, 미래교육 기반 조성, 유아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과 역점과제 3가지에 대한 중점적인 설명 등 전반기 중점 교육활동 사항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신안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깊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학력향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원청 역점사업과 연계된 주요 학력향상 지원방안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화순교육청, 2022.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연수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 수 2021년 기준 529명, 전체 학생수 대비 8.8%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초, 중 다문화 담당교사 26명을 대상으로 2022.다문화(상호문화)교육 지원계획 및 학교 중점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적극적 추진을 요청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각 학교 다문화 담당 교사들이 각 프로그램들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학교에 적합한 사업들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화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529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8.8%로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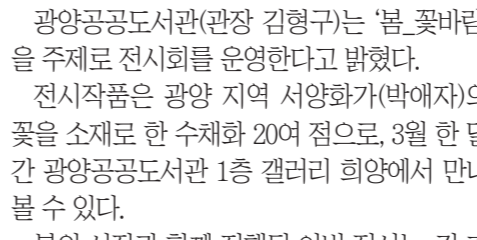
이에 화순교육지원청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정책학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맞춤형 학습지원 방문강사제, 이중언어말하기대회, 학부모교육, 독서동아리, 다문화예술동아리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다문화 업무를 처음 맡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연수가 다문화 학생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상호존중 교육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앞으로도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 수준을 높여 화순지역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광양공공도서관, 갤러리 희망 '봄 꽃바람' 전시



광양공공도서관(관장 김형규)은 '봄 꽃바람'을 주제로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시작품은 광양 지역 서양화가(박예자)의 꽃을 소재로 한 수채화 20여 점으로, 3월 한 달간 광양공공도서관 1층 갤러리 희망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이번 전시는, 긴 겨울을 끝내고 맞이한 봄의 따스함과 희망을 전해주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관계자는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다.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로 지역민에게 열린 공간이자,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갤러리 희망은 2월 사진전을 시작으로



서양화, 수채화, 서예 등 광양 지역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매월 전시할 예정이며, 4월에는 「동그라미 속의 풍경」을 주제로 사진전(임재현)이 개최된다.

전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어린이자료실(☎797-5352)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심종섭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